

해방수레를 끌며_06



해방수레를 끌며 06

“해방수레를 끌며”는 전노련내의 선진적인 간부를 중심으로 교육용으로 정리되어진 자료이며 지난 14기 우리를 갈무리하는 자료적 측면이 크다. 하기에 ‘해방수레를 끌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미는 있다. 반듯이 지역별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풍부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14기부터 분기별 제작을 목표로 했으나 실천되지 못한 것은 추진 주체의 게으름 때문이다. 시기별로 주요한 쟁점을 전문화 정제화시키는 작업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숙원 사업이다. 그 부족한 첫 걸음으로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해방수레를 끌며”에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한다.

아직은 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신새벽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방수레를 끌자.
녹슬은 수레바퀴의 힘겨운 숨소리가 들릴 지라도 어둠에 갇쳐 모두들 숨죽여 있을 지라도 좀더 낮은 세상을 향해 일보 전진하는 꿈을 꾸자.

인권정보자료실
ESg1.11

전국노점상연합

전국노점상연합

튀밥장수

어제 오늘 왜 아니 왔을까
열두시면 가곡을 들려주는 튀밥장수
하수구 냄새 풍기구
너도나도 머리를 염색한 아가씨들과
귀고리를 단 젊은이들도
자주 눈에 띄는
강남 도심의 골목길에서
열두시만 되면
꼭 가곡만을 틀어 주는
얼굴 엷은 튀밥 장수
간혹 알사탕 장수가 와서 벗할 때는
웃음도 보이더라만
생활이 쫓겨 날은
아득타 기약이 없어
튀밥 행상을 집어치웠을까
찬바람 불 때는 아직 멀었는데

해방수레를 끌며_06



아래로 부터 투쟁하는 대중! 그것이 힘입니다.

전국노점상연합 14기 의장 _ 김흥현



동지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난 여름 여러분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던 가로수 잎이
이제는 좌판주변이나 노점상들의 발 밑에 한잎 두잎 떨어져 쌓여 있
을 겁니다. 문득 그 낙엽을 보면서 지난 시기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갔던 수많은 동지들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지난여
름의 푸르름 만큼이나 햇볕을 막아준 잊고있던 그들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변의 고마운 동지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기 수많은
연대투쟁으로 함께 해왔던 동지들, 저 멀리 지방에서도 마다 않고 달
려오거나 내려간 동지들이 그들일 것입니다.

“해방수레를 끌며 6호’ 를 마침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다양한 사람들의 글이 실리는 것 같아서 어느때보다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운동의 나갈 바와 방향을 정리하여 대외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대단히 주요한 사업입니다.

가로수가 어느덧 100호를 맞이하여 일반 회원들에게 그리고 각 사회단체에 배포되듯이 “해방수레를 끌며” 는 가로수에서 모두 담아내지 못하는 회원들의 일상과 문화 그리고 전노련의 몇가지 정책, 다른 부문의 현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책이 현재의 노점상 운동을 이해하는 주요한 자료가 될것이라 확신 합니다. 지역별로 간부들을 중심으로 많이 회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지여러분!

마지막으로 단속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매일 단속 받는 노점상들의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래로 부터 투쟁하는 대중, 고통받고 소외 받는 이들의 각각의 역량을 모아 투쟁을 할 때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의 물이 었던것이 마침내 커다란 강이 되어 폭포가 되고 급류가 되듯이 건강한 흐름을 묶어서 힘을 모아 힘차게 투쟁을 전개해 나갑시다.

책을 읽으며

해방수레를 끌며 6호를 발간하게 되었다.

우선 첫 번째 쪽지로 노점상들의 일상과 삶을 엮은 “노점상들의 삶과 글”이 있다. 이 문화면에는 제 6회 전태일 문학상 시 부문 수상작 품집에 실린 황규관 시인의 겨울날을 비롯하여 우리 회원님들의 시가 실려 있다. 이밖에 선금옥씨의 “자랑스런 노점상”을 비롯한 회원들의 수필과 인터뷰가 실려있다. 북부 사무차장의 단편 ‘신도시’는 처음으로 노점상과 관련된 소설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 하겠다.

두 번째 쪽지로 기획 ‘2001년 전노련의 투쟁을 찾아서’에서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들의 인권 찾기’ 부분으로 이는 지역차원에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되어졌다. 좋은 참고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도시빈민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 ‘제대로 된 투쟁!! 승리하는 집회를 만들자’ 는 올해 보고된 글 가운데 서너편을 모아서 재구성을 하였다. 특히 제대로 된 투쟁..의 내용중에는 올해 개최된 “표

현에 자유공청회” 자료중 집시법 관련 글을 많은 부분 인용 하였으며 집시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꼭지로 노점상의 주위를 둘러싼 운동과 관련해서는 통일, 의료, 그리고 농민, 철거부문이 실려 있다. 각각의 부문과 현황은 우리를 둘러싼 정세와 관련된 부분으로 빈민운동을 보완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통일부문은 지난번 월례공개 강좌를 통하여 강의를 해주신 권인창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공동의장님께서 직접 글까지 정리 해주셨다. 빈민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빈민에 대한 주요한 몇가지 개념과 더불어 의료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정세전망과 정치세력화를 정리하였다.

내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일정은 우리 운동의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의 ‘2001년 상반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평가와 과제’는 올해 김대중정권을 둘러싼 투쟁과 관련하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시기 정치조직이 나가야 할 바를 정리하였다. ‘2002

년을 앞둔 진보정당과 부문운동의 과제’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부문운동의 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리된 글이다 이 부분 역시 2002년 현안을 중심으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정세전망과 정치세력화는 내용에 있어서 다른 단체의 실천을 비판적으로 서술해 놓은 부분이 많이 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단체별 또는 개인별 입장으로 살펴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며 우리를 둘러싼 몇 가지 논쟁의 지점임을 확인했으면 한다.

언제나 갖는 문제의식이지만 “해방수레를 끌며”는 일반 회원들을 상대로 폭 넓게 쓰여진 글이 아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글이 어렵거나 또는 회원들의 일상적인 삶을 풍부하게 담아내지 못해서가 아니다. “해방수레를 끌며”는 전노련내의 선진적인 간부를 중심으로 교육용으로 정리되어졌으며 지난 14기 우리를 갈무리하는 자료적 측면이 크다. 하기에 ‘해방수레를 끌며’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의미는 있다. 반듯이 지역별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풍부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 14기부터 분기별 제작을 목표로 했으나 실천되지 못한 것은 추진 주체의 게으름 때문이다. 시기별로 주요한 쟁점을 전문화 정책화시키는 작업은 반듯이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숙원 사업이다. 그 부족한 첫 걸음으로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해방수레를 끌며”에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한다.

아직은 어둠이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신새벽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해방수레를 끌자. 녹슬은 수레바퀴의 힘겨운 숨소리가 들릴 지라도 어둠에 갇쳐 모두들 숨죽여 있을지라도 좀더 나은 세상을 향해 일보 전진하는 꿈을 꾸자.

2001년 사무처



해방수레를 끌며 _ 06

인사말

책을 엮으며

문화 _ 노점상들의 삶과 글

■시

겨울날 _ 황규관	11
노점상, 구월아 _ 김영철	12
자찬, 싸우는 우리들, 복소리 _ 홍정자	13
붕어아줌마 _ 노점상	20

■수필

자랑스런 노점상 _ 선금옥	24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는 도깨비가없다. _ 권선희	27

■인터뷰

민중가수 박준동지를 찾아서 _ 홍웅식	34
----------------------	----

■소설

신도시 _ 변순희	42
-----------	----

해방수레를 끌며 _ 06

기획 _ 2001년 전노련의 투쟁을 찾아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점상들의 인권 찾기 _ 서지은	80
도시빈민활동가들의 역할과 임무 _ 최인기	104
제대로 된 투쟁!! 승리하는 집회를 만들자 _ 최인기	145

부문 _ 노점상의 주위를 둘러싼 운동

통일 _ 도시빈민 통일 운동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_ 권오창	176
의료 _ 빈민건강의 현실과 건강권 투쟁의 과제 _ 김재구	196
농민 _ 농민운동의 방향과 과제 _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실	226
철거 _ 철거민 투쟁사 _ 전국철거민연합	240

특집 _ 21세기 정세전망과 정치세력화

2001년 상반기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평가와 과제 _ 김광수	268
2002년을 앞둔 진보정당과 부문운동의 과제 _ 정현수	276
왜 노동자 계급 정당인가 _ 노동자의 힘 강령위원회	292

겨울날

고구마 참한 놈, 말린 토란대며 고구마순 주섬주섬 보파리 챙겨 어머니 돈사러 가셨습니다. 밀린 아들놈 수업료 몇 푼 챙기러 강물 얼음 쨍쨍한 바람 속을 새벽같이 장에 가셨습니다. 튼 입술 같은 하늘에 칼날 같은 바람만 훽훽해 동구 밖 미루나무 가지만 똑똑 부러지는데 마당에 해거름만 쌓였지 어머니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았구요 언 강물에는 물오리 한 마리 없었습니다. 별들이 하나 둘 옷 벗을 때 어머니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았군요. 언 강물에는 물오리 한 마리 없었습니다. 다 별들이 하나 둘 옷 벗을 때 어머니는 어느 노상에서 팽팡얼어 버렸습니다. 단속반에 쫓겨 참한 고구마 으깨어지고 말린 토란대 고구마 순 짓밟히셨나. 아들놈은 중학교 1학년 영어책 열번 쓰기 숙제 하다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꿈속에서도 강물은 풀리지 않았구요 어머니는 오셨는지 안오셨는지 겨울의 구속구석을 휩쓸 듯이 내리는 하얀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6회 전태일 문학상 시 부문 수상작품집에 실린
황규관 시인의 시입니다.

노점상

사당지부 회원 _ 김영철



모자파는 칠용네는
부부모두 2급 장애우
말하지도 듣지 못하고
손가락 열개로 모자값 흥정하고
복학생 아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자고
컴퓨터만 두들긴다 걱정하면서
공부해야 돼
가르쳐야 돼
오늘도 두손으로 말한다.

신발파는 유리네
40도 안된 젊은 나이에
신랑이 당뇨로 한쪽 눈 실명하여
노점사장 되었지
산더미 리어커 혼자 끌며
예쁜 두딸 잘 키워야 한단다.

내 어릴적 울 엄니는 소달구지도 끌었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땅 어머니는 강하다.

바퀴약 파는 리스네
하늘 같은 남편 교통사고 사별하고
새벽에 빌딩 화장실 청소 하며
바퀴약 팔아 세딸 가르친다.
때론 철 없는 딸 웬수 같고
하루에도 몇번씩 치미는 서러움
개시키지만 먼저 가버리고
아!
바퀴야 고맙다.
네 들이 우리 네식구 먹여 살릴 줄이야...



구월아!

사당지부 회원 _ 김영철

너는 아느냐
 팔월의 땀을
 감옥소 가고
 어버이 잃고
 깃발 다시 세우며 살아온 팔월을
 한평 안된 세상에서
 땀내음 홀로 뉘아내며
 한뼘 창가 기대어
 팔월 햇살 그리움 너는 아느냐

그리 가시는 길이라지만
 마지막 하고픈 말씀 가슴 담고
 뜨거운 팔월
 가슴 안고 그리 갈수 있단 말이나.
 다시 또
 묻어둔 깃발 세우며

바람 한점 없는 뜨거운 팔월 하늘 아래
 펄럭 이지 못하고
 기다림
 그리운 동지 의 가슴 너는 아느냐

구월아
 너는 아느냐
 길거리 모퉁이 녹슬은 칼 갈며
 팔월에 흘린 땀을



자찬

동대문지역연합 회원 _ 홍정자

한적한 노적에
이렇게 비싼 가인을 만났으니
청 푸름한 여정은 애 잡기만 하여라
저가 흘러가는 저 물곶은
하염없이 맑기만 하고나
사방지기 초잎새
그 논뚝에
펼쳐진 대자연의 맥락은
한량 없는 세월은 시새움에 즐거워한다
이내 여심도 나절로 덩달아
한 두레 두 두레 물푸레 떠올리는
그을은 아낙이 되어
등근 달죽 한 절지 화폭에 감싼다.
싸우는 우리들 6.13대회를 치루며 -



싸우는 우리들

동대문지역연합 회원 _ 홍정자

두눈에 불을 켜 사람들
끝자리 대지위에 서언 사막의 여우들
여기 이곳에 장대깃발을 들고 선 사람들
햇볕에 그을려 빛 바래도 그래도 펄럭인다 노점상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모습은 천파만파에 엮여엮여
장단 맞춰 춤을 추듯이
벌꽃인가 불꽃인가
벌겅게만 검붉게 달아 오른다
정녕 하늘에다 통곡하는 예사군이 되어 여기에 선다
아- 일찍 깃발을 든 사람 그가 개벽수 그뒤에 뚝대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 끝자리 대지위에 서언 사막의 여우들
우리는 뭉친 가슴에 조용히 움직이고
숨소리를 하나로 향해 원을 그린다
천지는 조용히 흔들린다

북소리

동대문지역연합 회원 _ 홍정자

나는 한낱 구슬픈 일생을 살아서 라기 보다
언제부터인가 억울함을 알은 원망을 배웠다.
세상에 펼칠 수 있는 도전이란 큰마음이 단혀져
광채 나는 가슴 꺾꺾 그 한가닥 있었던
사회는 회색빛깔 수채화처럼
뜨거운 여름날의 강물처럼 말이 없고
나는 그 위를 연꽃처럼 두둥실 떠다닌다
역시라는 중립이 아무리 달래어도 어찌랴
절망이란 구름이 아무리 달랬어도
나는 우선 나의 자존심이
표창처럼 버티고 섰으니
세상은 24시
그 세상 부름에 순응하듯
정도에 굽는 굴렁쇠가 되어
고무줄 같은 실타래 같은

그런 인생 끈을 가지고 헤맨다

나 속인이여

그가로 지기여

나는 그이정표에 마침표를 세우고 싶어라

그리하여서 기어이 하늘에 닿아

북이 되어 그 북을 두드리리라

북소리를 내리라





퐁어 아줌마!

노점상 (전노련 홈페이지 중에서 퍼온글)

내 장사하는 이웃에는 일명 퐁어아줌마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신다.
퐁어, 토끼, 햄스터, 새, 품목이 살아 있는 동물이다보니 늘 호기심 어
린 아이들이 북적 된다.

올해 연세가 회갑이고 20여년을 노점행상으로 5남매를 홀로키워 이
제 모두 출가시켜 잘 살아가고 있다.

언제 보아도 당당함과 걸걸한 목소리 나는 늘 우리지부에서 여장군
이라 칭한다.

그회갑인 아줌마가 ...

요즘 공부를 하고 있다. 학원에 등록하여 오전에는 학원에서 공부하
고 장사하는 틈틈이 그 어두운 눈으로 책을 펴들고 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단다.

아이들이 아닌 며느리 사위들이 내가 운전을 배워조그마한 차라도

물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 하겠느냐고....??

그 자식들이 좋아함을 해보이려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런
가..

희망...

나는 노점을 시작하면서 동안에 나에 꿈과 희망을 물어버리면서 아
니... 애써 외면하면서.. 시작하고 하여왔다.

희망은 심력이다. 즉 정신의 힘..

심력이 강함은 어떠한 물리적인 힘보다도 우위이다.

주위의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보자.

조직을 잘 세우는 사람을 보자..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자..

모두 심력이 대단한 분들이다.

나는 그분들이 지금 비록 노점을 하고 있지만 좋은 환경과 여건이 갖
추어만 진다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수 있을것 같다.

살아가면서 점점 인생과 사물에 대한 관찰과 애정과 궁극적인 사고
는 곧 희망을 잉태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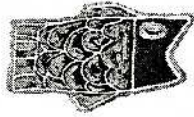
희망은 곧 내 의지요 심력과 행동이다.

큰 희망이 있어 행복함도 아니고 작지만 내 일상에 늘 함께 하며 기쁘

어가며 성취하여 갈수 있음이 행복이다.

붕어아춤마처럼 소박하고 작은 희망을 내 안방에도 내 매대에도 걸어두고 싶다.

자주자주 바라보면서 희망을 소망하며 작은 몇개의 희망이 성취되면 내일에는 더 큰 희망을 걸어두리라.



수필

자랑스런 노점상 _ 선금옥

도시속의 노점상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는 도깨비가 없다. _ 권선희

자랑스런 노점상

자랑스런 노점상 _ 선금옥

노점
상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찌는듯한 무더위 속에 파업, 단속, 투쟁은 술렁술렁 와글와글 다른 해보다 더 시끄럽다. 인간답게 살아 보겠다고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지극히 당연한 노동자들의 요구에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들이 방패로, 봉으로, 완마로, 공장에서나 쓰이는 도끼로, 군화발로 차를 부수고 노동자들을 개패듯 몽둥이를 휘둘러 눈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부러져서 실신할 정도로 피터지게 패야할 일이 무엇인가? 가슴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오른다.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을 치뤄야 한다며 거리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언제나 힘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한단 말인가? 올 여름은 유난히 더울 것 같다.

나는 부평에서 조그마한 좌판에 미니 분식을 하고 있는 노점상 아줌마다. 노점에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다. 내가 노점에 자리를 잡은 지도 벌써 십여년이 흘렀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비가 오질 않아 가뭄이 심해 농촌에서는 농작

물들이 타들어간다고 양수기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태풍에 장마로 오늘도 비가 내린다. 비가 오면 노점을 펴고 파라솔에 비닐을 둘러 작은 하우스를 친다. 하우스 속에서 우산을 쓰고 찾아오는 손님을 맞는다. 비도 오고 군입대한 막둥이 생각에 마음도 울적해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듬뿍 듬뿍 많이 포장해 줘야겠다.

장사가 안돼 점점 더 힘들어진다. 기름술 같은 올 무더위를 또 어떻게 견딜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튀김을 하고 떡볶이를 하고 순대를 삶다보면 푹푹 찌는 열기를 참고 견디어야 한다. 하지만 너무 더워 은몸에 땀띠가 나고 애리고 쓰러다. 출기는 해도 장사하기엔 겨울이 난 것 같다. 겨울에도 귀에 발에 동상이 걸려 동동거리지만 현기증은 없다. 여름엔 장사도 안되고 더위를 먹어 가슴이 울렁 거리고 현기증이 난다. 그래도 참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우리 아들 삼형제 가르쳐야 한다. 말썹 한번 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집안 일도 열심히 해주는 애들을 보면 마음이 뿌듯하다. 큰 아들이 96년 연세대에 입학했다. 그런데 구청에서 97년에는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노점상들을 단속하기 시작했다. 불시에 리어커를 빼앗긴 부평시장 노점상 30여명은 뭉쳤다. 그리고 전국노점상연합을 찾아 도움을 청했다. 우리는 힘을 얻어 열심히 투쟁을 시작했고 계속적인 투쟁속에 전국집회도 성사했다. 그 결과 지금은 자리잡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사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 그런데 IMF이후 장사가 너무 안돼 걱정이 태산이다. 큰아이 군입대하고 군복무 하는 동안에

둘째 가르치고, 큰애 제대하고 작년에 복학 한 후 대학 다니던 막내가 6월초에 대구 훈련소에 입대했다. 대학교육을 한꺼번에 둘 모두 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하고 용돈을 쓰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많다. 항상 애들한테 미안하기만 하다. 남들처럼 좋은 옷 못입혀 보고 먹을 것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게 미안하고 아파도 같이 있어주질 못했다. 남들 흔하게 보내는 학원 한번 제대로 보내보질 못했다. 용돈 한번 넉넉히 주지 못했다. 그러나 든든하다. 우리 아이들만 보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다. 노점상을 하고 있는 엄마를 부끄러워 하지 않고 고생이되어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위안을 해준다. 집에 들어오면 어깨며 다리를 주물러 주는데 하루의 피로가 싹 풀린다. 나는 해낼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해도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어느 누가 단속을 한다 해도 끝까지 투쟁하고 연대하여 싸워 나갈 것이다.

도시속의 노점상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는 도깨비가 없다.

도시속의 노점상 청계천 도깨비 시장에는 도깨비가 없다. 권선희

벼룩시장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다. 유명한 프랑스의 중고품 시장을 일컫는 'marche aux puces'의 역어로 전해진 벼룩시장은 영어로는 'flea market'으로 전해 졌다가 'free market'이 되었다.

주말이면 상인들이 공터에 몰려와 차일을 치고 좌판을 벌이는 벼룩시장.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감쪽같이 없어졌다 다시 나타나는 무허가 노점상의 모습이 마치 벼룩이 튀는 것 같다. 혹은 벼룩이 생길만큼 낡은 것을 팔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아니면 도깨비 시장이라고도 하는데 있는 이는 도깨비가 나올 정도로 어수선하고 복잡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렇듯 청계천은 저렴한 중고 교환 시장으로 팔던 물건이나 낡은 물건들을 들고 나와 자동차 뒤에 펼쳐놓고 팔거나 길 건너에 펼쳐놓고 장사를 한다.

흔히들 청계천 황학동을 중심으로 길게 펼쳐진 이곳 시장에는 없는 것이 없다고들 한다.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시장. 이곳에선 미사일은 물론 핵 폭탄까지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어느 장삿꾼이 열심히 물건을 팔기에 비집고 들어가 보면 십중팔구 '남자들의 정력에 끝내준다는 무슨무슨 약 이거나 아니면 만병 통치약' 이 대부분이다

어디 그뿐이라 골동품부터 중고가구, 가전제품, 시계, 보석, 카메라, 각종 기계공구류, 군용품 심지어 무슨 심상치 않은 테이프에서 책이나 기구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쌓여있다. 이름만큼이나 없는 게 없다. 자! 이제 청계천에 과연 도깨비가 있는지 아니면 벼룩이 있는지 여행을 떠나 보기로 하자

논밭에서 황학동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이곳은 약 50년 전부터 상인들이 하나 둘씩 모이면서 만물상들의 집합장소가 되었다. 조선시대 말까지는 그저 논밭이었던 이곳에 '황학동' 이란 지명이 붙여진 것은 일제말기,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본격적으로 띄기 시작한 것은 6.25직후 였으며 전쟁이 끝난 후 청계천변이 월남민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물상들이 들어서기 시작했

다. 다른 벼룩시장에 비하면 그 역사가 꽤나 깊은 것이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청계천 복개공사와 새마을 운동으로 고물상이 점차 밀려나고 골동품과 헌 책방들이 들어서면서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상권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양한 물건들이 그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곳도 시기적으로 유행하던 몇 가지 품목의 흐름이 있었다. 첫째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물건은 골동품이었다. 그러나 이도 80년대 초부터는 하나 들쭉 문을 닫거나 인사동과 장안평으로 옮겨가면서 지금은 10여곳 정도가 명맥을 이어주고 있다. 과거 책값이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시절에는 헌 책방이나 고서점 등이 즐지어 있었고 80년대 들어와서 청계천 8가 뒷편에 소위 백판 이라 불리던 해적판이나 테이프들이 제작이 되어서 전국 각지로 배포되어 음악에 목말라 하던 젊은이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도 했다.

이렇듯 청계천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그 변화는 만만치 않다. 우선 동대문 운동장 근처인 신평화 시장에서 광고쪽 방향은 지금도 헌 책방들이 과거의 명성을 회미하게나마 보여주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광고 방향으로는 주로 공구 상가가 신평화 시장 부근에는 노점상이 그리고 우리회원들이 몰려있는 7가와 8가 사이에는 그야말로 벼룩시장에 걸맞는 만물상들이 널려있다. 이곳도 80년대 들어서 비디오 영상 관련 업종들이 시작했으며 전자제품, CD, 낚시용품, 최신인 테리어등 없는 것이 없는 황학동 벼룩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최근 들

어 값이 싸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이 많은 벼룩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싼게 비지떡'이란 건 이젠 옛말이다. 벼룩시장에는 가격이 신상품의 절반인데다 '새것 같은 중고'도 많아 잘 고르면 명품을 찾아 볼수 있기 때문이다.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미덕 또한, 최고의 복고풍의 유행에 맞춰 각종 옛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어 흘러간 취향을 만족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의 나들이 장소로...

청계천의 경우 광고가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청계천 끝을 훨씬 넘어서까지 벼룩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니 그 크기로 치자면 가히 세계에서 가장 큰 벼룩시장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주말이면 온 가족의 나들이 장소로 애용이 되거나 방학 때면 숙제로 초등학생들의 견학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곳의 골동품은 진귀한 옛 물건과 함께 영화나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보았던 추억 어린 향수를 자녀들과 함께 하려고 주말이면 정기적으로 찾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 나는 데로 틈틈히 이곳에 들러 아이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자기의 취향에 맞는 골동품을 구하려 오는 마니아들, 물건만큼 찾는 사람도 가지가지다.

얼마 전 이곳의 시장을 외국의 이색 볼거리의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의 이태원, 인사동,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등을 거쳐서 우리나라 서민들의 삶이 넘쳐나는 귀중한 관광자원의 하나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하다. "아이들과 아빠 손을 잡고 한 달이면 한 번씩 꼭 들르기 시작하지 벌써 몇 년째입니다." 요즘 잘 팔리는 물건과 가격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담뱃대, 나막신, 개소반등 주로 10만원 미만의 생활 용품입니다. 여물통은 크기에 따라 5만~10만원 정도이고 마차바퀴는 20만원 내외입니다. 고운 참 빛 3만원입니다' 요즘 하루 매상은? '한 겨울과 여름은 비수기입니다. 봄과 가을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반짝하는 편이지요."

길거리에는 사람들이 넘쳐 나지만 이들이 모두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전노련 회원들이 모여서 장사를 하는 곳은 삼일 아파트를 끼고 15동 16동 사잇길부터 청계천 7,8가 그리고 평화시장 앞길이다.

황학동은 도깨비 처럼 사라질 운명인가?

삼일아파트 2동에는 지난 5년전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쟁을 벌인 끝에 새롭게 지역이기도 하다. 이곳에 있는 장애인을 통해서 당시의 투쟁 상황을 들어보자.

“당시의 싸움은 정말 치열 했습니다 이곳의 차도를 장애들이 모두 막고 죽음을 불사우고 싸움을 전개 했습니다 그 투쟁으로 모두 몇 명이나 구속을 당하기도 했죠”

세계적인 풍물시장, 벼룩시장으로 손색없는 황학동, 청계천 벼룩 시장이 벼룩시장의 운명도 미래를 점치기는 무리수가 따른다. 바로 청계천을 따라 늘어선 삼일아파트의 철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철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는 장사를 하고 싶어도 공사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에 따른 시나 건설회사에서는 대안이 있는가? 물론 없다.

“글쎄 앞으로 삼일아파트 철거를 통해 이곳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지역을 이전한다고 하고.. 소문이 분분합니다. 그때 되면 또 무슨 수단이 생겨나겠지요.”

힘한 일을 밥먹듯이 겪고 살아온 노점상들에게 몇 년 후의 일보다 당장 불경기로 장사가 안 되는 것이 더 걱정이다.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영환 전 중구지역 지역장을 통해서 물어보면 “이곳은 내년 3월부터 철거가 가시될 예정입니다. 좀더 자세한 진행에 대하여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체적으로 ‘노점상 철거반대 비상대책위’ 를 구성하여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차후 ‘중부지역민중연대’ 등에 결합하고 있는 제 사회단체를 통하여 연대폭을 넓혀 투쟁을 할 것입니다.”

청계천 2기

이제 이 더운 여름도 가고 곧 가을이 올 것이다. 창 넓은 카페에 앉아서 달콤한 원두커피 한잔을 마시는 기쁨 못지 않게 청계천 포장마차에서 먹는 우동 맛은 또 다르다 그리고 곧 눈 내리는 겨울이면 하얀 설탕 같은 병어리장갑을 아이의 두 손에 꼭 끼워주고 싶은 곳 가끔은 어수선하게 보일지라도 청계천을 걷는 낭만이 분명 있을 것이다. 낡은 레코드판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 그곳은 삶의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생동하는 힘이 넘치는 장소인 것이다. 하루하루 힘겹지만 건강하게 살아가는 터전인 것이다.

이제 삼일 아파트 뒤로 찾아오는 해거름 왁자지껄한 거리의 모습은 간데 없고 산더미 같이 쌓여있던 물건들은 굵은 밧줄로 칭칭 동여메어 열쇠로 묶게 잠겨져 있다. 깊은 골목 아무 곳이나 찾아가 보면 아직 파장을 끝내지 않은 노점상들이 포장마차 아래로 하나 둘씩 몰려 곱창에 쓰디쓴 소주를 털어 넣는 곳, 그들은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접는다. 눈먼 맹인의 하모니카 소리도 함께...

인터뷰

지친 거리의

우리에게도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었다.

인터뷰

인터뷰

텔보 「박 준」 동지 만나고 싶었습니다.

홍 옹 식 _ 전노련 조직2국장

서울역에서 진행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문화제에서 박 준 동지를 만났다. 이날 역시도 여러군데의 투쟁현장을 다니다 보니 목이 많이 안 좋았지만 “박준” 동지답게 열심히 노래를 불렀다. 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잠시 숨을 돌린 후 부인 박은영 동지의 차안에서 인터뷰를 나누었다.

▶ 조직2국장 홍옹식 _ 안녕하세요? 투쟁의 현장에서 노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준 동지 _ 반갑습니다. 전노련 동지들도 용역깡패에 맞서 투쟁하시느라 수고 많으시죠.

조직2국장 홍옹식 _ 아닙니다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김대중정권의 노점탄압은 그 수위가 높아만 질 것입니다.

박 준 동지 _ 아마도 그럴것입니다. 노점상 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에 대한 탄압, 그리고 민중들에 대한 탄압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조직2국장 홍용식 _ 자세한 이야기는 본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인터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 준 동지 _ 평소에 현장에서 만날 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인터뷰를 한다니 갑자기 긴장이 되는군요.

조직2국장 홍용식 _ 언제부터 노래를 부르셨는지요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박 준 동지 _ 80년 명동성당 청년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 암울한 시기였으며 청년미사에서 성가만이 아닌 아침이슬등 당시의 저항노래를 불렀습니다.

조직2국장 홍용식 _ 노래운동을 하시려면 고생이 많으실텐데...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죠?

박 준 동지 _ 95년도에 결혼을 하여 부인은 박은영 동지로 함께 민중가수의 길을 가고 있으며 그 사이에 박산해(6) 박하늘(4) 두딸을 두고 있습니다. 딸기(딸래미 기집애)아빠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하 하 하

조직2국장 홍용식 _ 동지께서 평소 즐겨 부르시거나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을 텐데요

박 준 동지 _ 민중가요중 '들불의 노래' 와 '내사랑 한반도' 를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사연이 있는 노래는 들불의 노래로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의 추모곡인데 단순한 추모곡을 뛰어넘어 이땅 민중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회에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

조직2국장 홍용식 _ 본격적으로 노래운동에 몸담게 되신 계기는 언제 입니까?

박 준 동지 _ 철거지역이었던 양평동에 고 제정구 님 그리고 카톨릭 도시빈민운동을 하였던 정일우 요한 신부님과 함께 도시빈민 철거민들과 늘 노래를 통해 만났으며 본격적인 것은 상계동 철거민들과 함께 87년 전 두환 4.13 호헌 후 명동성당에서 생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85년 심장병 어린이 이주연(당시 5세) 성탄절에 곰인형을 사주기 위해 노래를 하였는데 성탄절전에 하늘나라로 가서 전달해주지 못하였고 그 이후 연말만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조직2국장 홍용식 _ 노래운동을 하시면서 가지고

계시는 주안점은?

박 준 동지 _ 나에게 노래는 나를 늘 성장하게 해주었고 운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늘 소명이었고 단순히 노래 몇곡의 힘이 아닌 현장에서 늘 동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 조직2국장 홍용식 _ 어려우신 점이 있으신지요?

박 준 동지 _ 문화일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곡이나 창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한 인식들을 달리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지도부의 사고가 10년이상 활동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 조직2국장 홍용식 _ 전노련 투쟁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되는 연대동지가 되셨는데 평소에 노점상에 대하여 느끼시는 점은?

박 준 동지 _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노점상 대 투쟁이 있었는데 당시 명동노점상 중심으로 투쟁에 결합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생계형 노점이 아닌 기업형 노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투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전노련 동지들을

만날 때 마다 느끼는 것은 사람냄새가 나고 풋풋한 정이 느껴지며 동지애를 가지게 됩니다.

▶ 조직2국장 홍용식 _ 전노련 동지들에게 바라고 싶은 점은?

박 준 동지 _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민노련과의 관계를 전노련에서는 잘 풀어 투쟁의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예전 철거민 조직이 분화 될때의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며 민노련에서 섭외가 올 때 사양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직2국장 홍용식 _ 현 노동운동을 포함한 민중운동을 바라보시며 하고 싶으신 말씀은?

박 준 동지 _ 노동자, 민중을 탄압하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전선은 분명 하나인데 비정규직 연대를 이야기하면서도 투쟁하는 동지들만 고립적인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하는 학생동지들이 있기에 비정규직 동지들이 많은 힘을 받고 있으며 연대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87년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하여 회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함께 투쟁하고 함께 깨치고 죽어도 함께 살아도 함께 하였었는데 요즘은 말

로만의 연대로 머물러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IMF
가 사람들을 움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의
기층연대를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
도시빈민의 투쟁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동지!
노래를 마치고 돌아서는 박 준 동지의 뚝직한 어깨,
그 어깨를 찬찬히 쓸어 내리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노점상들의 잔잔한 눈길들... 그들의 한 평생 소중한 기
억으로 자리잡고있을 털보 박준 동지의 뒷모습은 한여
름 지친 거리의 노점상에게는 시원한 한줄기 바람이리
라...

따사로운 가을 햇볕도 이제 끝물인가
하늘 너머 노을이 곱다.



신도시 新都市

신도시 新都市

신도시 新都市

신도시 新都市

신도시 新都市

북노련 사무차장 _ 변순희

딸아이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막 들어서고 있었다. 제 몸보다 몇 배나 무거워 보이는 가방에 쌓여 어깨가 늘 축 늘어져 있던 예전과는 달리 오늘은 밝은 표정으로 오른 손에 가득 물건이 들려져 있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모양이었다.

딸 애 기분이 좋으면 다행이지. 힘들어도 자식 커 가는 재미로 살아가는 게 부모들의 마음이지 않던가. 부업으로 들어갔던 딸아이는 엄마가 누워있는 안방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왔다. 딸아이가 들어오는 소리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누워 있었다.

“엄마”

딸아이의 목소리를 듣고 난 후에야 마지 못해 등을 돌려 눈을 맞추었다.

“응. 그래. 왔어.”

“엄마. 어디 아파요? 왜 그러고 누워 계세요?”

“아냐. 그냥 몸이 좀 찌푸둥해서 쉬고 있었어.”

“병원에라도 다녀오시지 그랬어요. 약은 드셨어요?”

“아냐. 이려고 누워 있으면 금방 나을 거야. 걱정 안해도 돼.”

“엄마 드릴려고 목도리 하나 샀는데.....”

“뭘하러 이런 걸 사. 돈도 없을 텐데.....”

“아니예요. 월급 아껴서 산거예요. 제 걱정은 하지마세요.”

엄마.”

“이리 가까이 와 봐.”

어렵사리 몸을 일으켜 딸아이를 향해 손짓을 했다. 딸아이는 미끄러지듯 엄마 턱 밑까지 다가와 반짝이는 눈동자에 핏기 없는 엄마의 얼굴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래. 요즘 사무실 일도 힘들텐데 학교 다니느라 많이 힘들지? 내가 여유가 없어서 너하나 제대로 못 챙기는 구나. 미안하다.”

“엄마.....”

“그래.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아줘. 좋아질 거야.”

“엄마. 너무 걱정마세요. 전 엄마가 아프지만 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응. 그래. 뭐지 말해 봐.”

“아빠 요즘 어때요? 아빠도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빠도 곧 예전처럼 좋아지실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네.”

“저녁은 먹었어? 아직 저녁 전이지? 내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혼자서 챙겨 먹을 수 있겠니?”

“엄마는요? 제가 저녁 상 봐 올게요.”

“아냐. 난 지금 생각 없어. 미안하지만, 혼자서 먹어야겠다.”

딸아이가 나간 방문을 바라보다 다시 자리에 누워버렸다. 그렇지 않아도 장사를 못하게 된지도 두 달을 훌쩍 넘기고 있었고 전세방을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맥이 풀려 오늘은 급기야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던 것이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교대 시간이 다 되어서야 다시 집을 나갔다. 밥은 떠든 등 마는 등 옷을 차려입은 남편에게 한마디 한 게 자존심이 상한건지. 아무 말 없이 나가자 그녀는 내내 불안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가까이 하지 않던 술이었는데 요즘 들어 부쩍 는 탓에 남편의 몸이 날로 심약해지는 듯 하였다. 그런 남편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맥주 석 잔이면 얼굴이 붉어지고 그래도 잠이 드는 남편이 언제부터인지 술 마시고 귀가하는 날이 늘어나고 있었다. 하는 일마다 꼬이기만 하니 심사가 뒤틀리는 것도 오죽하랴 싶지만 저러다가 사람하나 잡겠다 싶어 그녀의 심장은 하루에도 몇 번씩 멎는 것 같았다.

전 사원을 대상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던 때가 1년 반전의 일이었다. 대기업에 속해 있던 회사가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이사진들의 비리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키면 정부로부터 위

크아웃의 대상이 되는 지정까지 가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사원들의 대량 정리해고가 진행되었던 것인데, IMF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때도 큰 무리없이 과장과 부장급들이 감봉을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되었던 일이 있었던 터라 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도 반신반의하긴 했지만 큰 흔들림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써 왔었다.

그리고 전원 사표가 제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위 동료들도 하나 둘 회사를 떠나는 일이 생겼다. 말은 하지 않아도 남은 사람들이나 떠나는 사람들이나 속울음을 삼키며 한마디 항변도 못한 채 짐을 싸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이 연출되는 시기였다.

노동조합이라고 버젓이 사장실 아래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또 하나의 작은 사장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사원들의 생각이었다. 당연히 조합집행부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입장을 옹호하며 사측을 대신해서 정부가 회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잘못만 지적할 뿐 뻔한 거짓말로 정리해고의 필요성에 대한 일장연설을 하고 돌아갈 뿐이었다.

개별적으로 울분을 토로하고 항의를 하러 들렀던 사원들이 없진 않지만 사무실 문이 닫혀 있기 일췌였고 설사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게 당시의 실정이었다.

물론 유명무실한 조합에 기대를 하고 찾아갔던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던 게 분명하지만,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만을 코 앞에 대고 토로하는 사람과는 끝내 주먹다짐을 하는 게 보통이었다.

그 후론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도 서서히 줄어들고 있었다. 물론 남편 역시 회사를 떠나기 전이나 후나 조합을 단 한번도 찾아간 적이 없었다. 언젠가 한번 연차 문제로 관리자와 심한 마찰이 있었고 해결을 위해 조합을 찾아 간 적이 있었다. 나 몰라라 하는 조합 집행부를 대하면서 주먹다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후론 조합에 대한 불신은 그 누구보다 컸던 것 같았다. 그렇게 사원들의 정리가 두 달을 넘기면서 남편과 주위의 살아남은 동료들은 내심 안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도 출근을 하기 위해 아침을 서둘러 남편은 집을 나섰다. 그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그녀는 밤을 세워야 했다. 아무 연락없이 외박을 할 남편이 아니었다. 처음엔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조금 늦게 귀가할 모양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었다. 거실의 패종시계가 새벽2시를 알리자 그녀는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핸드폰은 연신 발신음만 널 뿐 저 쪽에서는 받으려는 기색은 없어 보였다. 새벽 5시를 넘기면서 남편에게 전화하는 것도 시름시름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평소 술 주정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남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아는 그녀는 늦은 귀가를 걱정하다 새벽 5시가 넘어서면서 혼곤한 잠에 빠져 딸아이를 깨워주지도 못한 채 늦은 아침을 맞았던 것이다. 허둥대며 딸아이가 등교하자 돌아오지 않은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들었다. 아예 발신음도 들리지 않고 바로 음성을 남길까 말까 잠깐 망설이다 수화기를 놓았다. 집에 들렀다 갈 것 같은 막연한 예감에 서둘러 아침상을 봐 놓았다.

추석을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아침저녁으로 난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온이 떨어지고 있었다. 남편은 어디서 밤을 보낼 것일까. 벌써 9시가 가까워지는데 남편은 소식이 없었다. 간밤에 제대로 이루지 못한 잠은 딸아이 등교와 함께 날아 가버렸고 시간이 갈수록 정신만은 더욱 더 또렷해지는 것이었다. 무수히 많은 생각들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올지경이었지만, 어떤 불안한 예감이 들어서인지 회사로 전화할 엄두가 나질 않았다.

바로 회사로 출근을 했을 거란 막연한 기대도 해 보았지만 역시 불안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10시를 넘기면서 더 이상 넋놓고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야 회사로 전화를 했던 것이다. 얼버무리는 듯 외근을 나갔다는 말만 남기고 동료직원들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 버렸다. 정말 외근을 나간 것일까? 그

런데 왜 그렇게 쫓기듯 전화를 끊어 버렸을까. 큰 사고가 없길 바라며 점심시간에 맞춰 남편 회사에 직접 가 보기로 했다.

아침에 챙겨 주지 못한 딸아이의 도시락도 전해 줄 겸 시간을 맞춰 집을 나서기로 작정을 했다. 현관을 나서기 위해 신발을 신으려다 다시 전화기 앞으로 다가섰다. 바로 음성으로 넘어가는 걸 확인하자 순간 판단이 어지럽게 머리 속을 헤집고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성을 남길까. 말까, 배터리가 떨어진 건지, 전원을 꺼 놓은 건지, 둘 중 어떤 것이라도 음성을 확인할 의지는 남편의 몫이었다.

다른 사고를 의심하기에는 남편의 부재를 동료 직원을 통해 듣지 않았던가. 음성을 확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집으로 전화 한 통은 넣어 줬을 법도 한데 직접 회사에 들어서 만나는 편이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딸아이의 학교에 들러 도시락을 전해 주자, 일추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남편을 만나기 위해 회사를 향하는 마음이 내내 편치 않았다. 심장 박동소리가 걸음걸이에 맞춰 박자를 놓는 통에 컹가엔 온통 심장 펌프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점심을 먹기엔 조금 이른 시간인지 아직 정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경비실을 지나 현관 앞 공중 전

화 앞에 다가섰다. 잠시 험 호흡을 한 뒤 지금쯤 남편이 자리를 지킬 거란 믿음을 애써 가지며 전화번호를 눌렀다. 세 번의 발신음이 떨어진 뒤 저 쪽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전히 남편은 부재중이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는 것이었다. 평소 남편과 친하게 지내던 직원의 이름을 대며 통화할 것을 부탁하자 점심 식사를 위해 이제 막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었다. 수화기를 놓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것만 연신 쳐다보고 있었다. 현관에서 기다리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전화를 끊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남편의 동료 직원이 현관으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몇 발짝 앞으로 다가서서 인사를 하자 황망한 표정으로 난감해 하는 빛이 얼굴에 스치는 것을 어렵지 않게 감지해 낼 수 있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저.....혹시.....”

“어떻게 회사까지 다 찾아오시고 점심 전이시죠?”

“아. 아니에요. 나중에 먹으면 되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지금 그 친구 회사에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외근 나가신 것 아니죠? 실은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되세요.”

“아 그래요. 그럴 친구가 아닌데.... 이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며칠 전부터 회사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마지막 공문이 부서별로 떨어졌는데 그만..... 명단에 그 친구 이름이.....”

“그게 언제였어요.”

“네. 말일부로 회사를 정리하라는 공문이었는데 퇴근 후에 직원들끼리 모여서 송별식 겸으로 한잔씩들 했어요.”

심한 현기증에 내다본 하늘엔 구름 속에 말려 든 태양이 심장을 향해 곧두박질 쳐 달려오고 있었다. 어디가서 남편을 찾아야 한단 말인가? 실종신고를 내기엔 남편의 자존심이 상할까봐 조심스러워지고, 마냥 기다리기엔 꼭 남의 일을 지켜보는 것 같았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동료직원에게 간단한 사정을 얘기하고 연락이 닿는대로 집으로 꼭 연락해주길 부탁하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운 게 조금 한 마음과는 달리 더디기만 하였다. 그날 밤이었다. 시대에 괜한 걱정을 끼쳐드릴 것 같아 연락하는 것을 뒤로 미루기로 하였다.

동료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은 늦은 밤, 몸 하나 추스리

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남편이 어떻게 동료 직원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구구하게 물어 볼 겨를은 애초부터 없었다. 동료직원의 작은 마당에 남편은 꼬꾸라져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는 말도 이젠 지쳐 있는 듯 보였지만 길거리에 버려진 휴지조각처럼 남편은 그렇게 일그러지고 구겨진 상태였다.

술 취한 장정을 들어내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동료직원은 남편을 집으로 데려다 주며 너무 상심 말라는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뒤돌아 갔다.

남편은 하루 웬종일 잠만 잤다.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갈증이 나는지 연신 물만 들이켰다. 그렇게 이틀을 보낸 남편은 들고 들어간 밥상을 물리지 않고 한 그릇 가득 밥그릇을 비워냈다. 아무런 말도 건넬 수가 없었다. 누구보다 괴로운 건 남편일테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삶의 의욕조차 잃어버리고 있을 남편에게 그녀로서는 어떤 위로의 말조차 해줄 수 없다는 것이 스스로 원망스러웠다.

남편은 여전히 잃어버린 말을 찾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걱정스런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남편은 잠깐 바람이라도 쐬고 올 테니 너무 걱정말라고 하였다. 말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무도 근접하기 어려운 그늘진 얼굴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얼굴 또한 수심만 커질 뿐이었다. 예전에 한번도 볼 수 없었던 지금 남편의 모습은 너무 낯설어 보

여 섬짓한 느낌마저 드는 것이었다.

전화기를 챙겨주려다 그냥 두기로 했다. 남편에 대한 믿음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사람에 대한 의례적인 믿음 같은 것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남편은 집안의 가장으로서 성실했고 시댁이나 처가 집이나 모두 제 부모 모시듯 세심하게 챙겨 내곤 했었던 것이었다.

결혼한지 이십여년이 지나도록 크게 눈살 찌푸리며 생채기 내는 일은 없었고 그것은 순전히 남편이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며 살아온 나름대로의 가정원칙수칙 같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정리 해고를 당한 뒤 한동안 집안 전체가 몸살을 앓았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일자리를 찾아 다닌다고 호들갑을 떨수 없는 것은 자칫하면 그녀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어떤 형태로든 남편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만큼 넉넉한 살림은 더욱더 아니었다. 커 가는 딸아이도 그렇거니와 이런 저런 일로 시댁에 적지 않은 돈을 퍼다 부은 것 또한 사실이었고 그럴때마다 몇 번의 대출이 뒤따랐던 것이다. 상처받은 마음을 하루빨리 회복하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았다. 남편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보름이 지나지 않아 남편과 그녀는 어느정도 속내를 털어

놓고 얘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심하게 앓고 있던 나름의 갈등을 남편은 시나브로 삭혀가며 서서히 일상으로 회귀하였고 회사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남편으로서는 보름동안의 방황은 어찌 보면 짧았다고 단언할 수 있을 법하였다. 그렇다고 그 보름동안 모든 것들이 쉬 정리되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남편의 성격으로는 심한 몸살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무던히 애쓴 결과였고 가슴속 깊이 사라지지 않고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배신감 같은 것들이 고개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이었다. 창을 통해 바라보는 산비탈의 불빛은 비탈진 언덕에서 사람들이 북적대는 한길까지 순서없이 들성들성 제 각각 하늘을 떠돌아다니다 숨을 죽여가고 있었다. 육체와 정신이 마치 분리된 듯한 모습의 남편은 살아있는 송장같았다. 아파트 베란다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타 들어가는 담배를 비벼 끌 생각도 없이 한 빛 두 빛 사라지는 건너편 산동네의 불빛을 향해 눈동자만 모은 채 서 있었다.

저녁 장사를 나가기 위해 상을 봐 놓은 그녀는 서둘러 한길로 나왔다. 조금 늦은감이 있었지만 새벽에 끝을 보는 장사라 준비해놓은 음식과 어제 팔다 남은 음식을 깡깡대며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아직 장사에 익숙지 않은 그녀는 많은 것이 서둘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버리곤 했다. 그녀만의 장사수완이 붙으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



고대. 언제라도 지금처럼
기쁘고 당당하게
살자꾸나

지만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그만 둘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할 직장이 선뜻 나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퇴직금을 가지고 다른 사업을 벌이기엔 엄두가 나질 않는 것이었다. 그나마 남은 퇴직금을 애저녁에 까먹을까 조심스러운 행보만 할뿐이었다.

만큼 자란 딸아이의 대학진학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고 대출이자 또한 가계에 큰 부담으로 남아 있었다. TV를 통해서 바라보는 실직자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이 사회가 어디로 갈려고 힘없고 죄없는 국민들만 잡아먹으려는지 모르겠다며 남편과 얘기 한 적이 엇그제 같았다.

몇 달을 돌아다니며 직장을 알아본 남편도 이젠 지칠대로 지쳐가고 있는 듯 했다. 실직될때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는 남편이 또 다시 좌절하는 것이 아닐까 그녀로서는 노심초사 장사를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가는 사람들을 상대로 떡볶이며 오뎅을 준비해서 노점을 하고 있는 그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가정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을까 생각하며 최악의 상태를 머릿속에 떠올릴때면 온몸이 부르르 떨리며 소름이 확 끼쳐 오는 것이었다.

노점을 시작하고 몇 주 동안은 낮부끄러워 모자를 눌러쓰고 손님들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죽을 심정

이었다. 이 나이에 이런 꼴을 보자고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싶기도 하고 당자 때려치우고 어디 식당에서 주방일이라도 다시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 뿐이었다.

남편의 실직과 함께 처음 시작한 것이 식당 주방 일이었다. 처음엔 주방에서만 일한다는 약속으로 들어간 식당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홀 서빙까지 요구하는 것이었다. 홀서빙을 하면서 손님들의 추근거림을 받아주기엔 무너지는 자존심을 참을 수 있었다. 일용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식당이라 거친 남자들을 상대로 음식을 나르기엔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문제는 아내의 힘겨운 노동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의 안타까운 마음이 식당으로 어려운 발걸음을 이끌도록 한 것인데 술 취한 손님의 농으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녀를 목격하면서였다. 크게 손님들과 다툰 남편이 아니었기에 다행히 싸움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손님들과 적잖은 실랑이를 벌이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다음날부터 그녀 또한 실업자로서 남편과 함께 아침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그녀는 또 다시 정보지를 뒤적이며 일자리를 구하려고 애썼지만 얼마지 않아 집에서 꼼짝도 않고 몇 주 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회에서 그녀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는 것, 상황에 따

라 이 사회 모든 주부들의 공통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생존 경쟁이었다. 하물며 그녀가 느끼는 사회적 인간으로서의 소외감이 목구멍에 밥알 밀어넣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인데 남편의 사회적 가치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뒹구는 낙엽 꼴이 되고보니 그 허탈감과 소외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남편의 정신마저도 갇아먹기에 안성맞춤이었다. 날이 갈수록 작아지는 남편을 바라 봐야 한다는 것, 그녀의 시선조차 부담으로 느낄 남편을 위해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한길로 나가기 위해 저녁상을 봐 놓은 아내는 마음이 급했다. 노점이라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 몇 십년을 노점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신규로 노점을 하는 사람이 진득하니 장사를 하기엔 그 사람들의 눈초리 매섭기가 북풍한설 못지 않았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세상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기 몫이 줄어드는 것을 고운 시선으로 봐 줄리 만무하였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란 게 서로 알고 지내고 정들면 그리 야갑하게 굴지는 않지만 어디나 마찬가지로 처음 발붙이는 것이 여간 힘드는 게 아니었다. 아직 몇 달 안된 그녀로서는 이 눈치 저 눈치 봐야 하는 위치였다.

IMF는 거리에 실직자들만 남겨놓았고 그들이 큰 자본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길거리에 좌판을 벌이는 거였고 사실 좌판을 벌인 그녀가 보기에 많은 노점상들로 길거리가 북적대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에 발맞춰 구청의 단속 또한 빈번해지면서 기존의 노점상들과 신규노점상들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녀 역시 서너 차례 단속반과 마찰을 빚었고 다행히 기존 노점상들의 도움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일은 피할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보였다. 기존 노점상들은 지역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하였고 그녀는 조금 더 두고 보자는 말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었다. 선뜻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것은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달 회비로 나가는 것이 몇 만원 안 돼 보이지만 남편의 실직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을 꾸려나가자니 얼마 안되는 그 액수도 부담스럽고 그것만이라도 가게에 보태려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이었다.

회원들의 말을 빌자면 큰 집회가 있거나 지방 집회가 계획되어 있으면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였다. 하루 벌어먹고 살기에도 바쁜데 집회다 뭐다 동원되어 간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데모하는 모습을 몇 번 본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와 하등 관계가 없는 먼 나라 얘기로만

여겨지곤 했었다. 그리고 그 데모군단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이 그녀로서는 낯뜨거워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노점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창피한 일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나 노점상이네' 하고 광고하고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이런 저런 나름의 이유로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며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서는 일이 익숙해질 무렵 남편은 택시라도 끌어야겠다며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 서서히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예전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안정이 되고 있었고 그녀의 노점도 남편의 택시운전도 그리고 딸아이의 대학진학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한바탕 온 집안을 휩쓸고 갔던 폭풍우도 반년이란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잠잠해져 가는 듯 보였다. 이제 아무 맛도 느낄 수 없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아파트 베란다에 기대서서 건너편 산동네를 뚫고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그녀로서는 더없이 행복했다. 딸아이 또한 집안 형편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야간 대학을 고집하여 진학하였고 낮에는 조그마한 개인 사무실에서 적은 월급이긴 하지만 등록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대견스러움을 보여주었다. 이런 속도로 나간다면 대출금은 이제 문제가 아니었다. 시간과 가족의 성실함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열쇠였고 계획된 데로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하여 먼 훗날 희끗희끗 머리가 스스로 염색되어질 무렵엔 한

때 힘겨웠던 가족사를 가볍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이다.

처음 노점을 시작할 때 낮부끄러워 모자를 눌러쓰고 시작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그녀도 어엿한 장사꾼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었다. 어느 정도의 이력이 붙었는지 장사해서 벌어들이는 돈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있었다. 새벽 두 시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리에 아직 드문드문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취객들의 택시 잡기가 줄을 잇더니 거리는 곧 한산해졌다. 한 여름의 뜨거움과 달아오르던 열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아직도 한낮의 잔기운이 남아 있어 새벽까지 리어카를 펼쳐 놓고 지나가는 행인을 기다리기엔 별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가을이 무르익을 날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자 그녀는 갑자기 온몸에 기운이 생겼다. 가을벌이가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던 터였기에 가을이 되기를 고대했다. 노점을 시작하고 한번도 가을을 맞이한 적이 없는 그녀로서는 내심 기대가 되기도 하였고 다가오는 초겨울은 노점을 시작한 지 정확히 일년이 되는 것이었다. 딱히 일년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가 결혼하고 난 후 스스로 뭔가를 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의 생계와 무관하지 않으며 일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지켜오면서

가슴 가득 희망과 용기라는 것이 그녀의 소중한 재산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파란 하늘 위로 끝간데 없이 펼쳐진 몽게구름 위를 걷는다해도 이렇게 마음이 들뜨고 가볍지는 않을 것 같았다. 집은 리어카를 한쪽으로 밀쳐놓은 그녀는 저녁에 사농은 찬거리를 들고 집으로 향했다. 아파트를 들어서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던 이 길이 오늘따라 가로등은 유난한 빛을 내 뽐고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철빠르게 떨어지는 나뭇잎이 가로등 불빛에 녹아 내리는 듯 하늘위에서 연신 춤바람난 여인네처럼 하늘거리다 소리 없이 거리 한복판에 살포시 내려앉았다. 아침 일찍 눈을 뜬다는 것이 예전처럼 쉽지 않았다. 새벽에 들어와 이것저것 정리하고 잠자리에 눕기 바쁘게 남편이 새벽운전을 하는 날이면 네시가 가까워져야 잠자리에 들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잠깐 비몽사몽간에 딸아이 회사출근에 아침상 차리고 도시락 싸느라 서너 시간 토끼잠에 눈 부비며 일어나 복적대다보면 거실 가득 차고 들어온 아침햇살이 눈붙일 틈을 주지 않는 것이었다.

물건 주문하고 주문이 되지 않는 것은 손수 물건을 가지러 가야 하는 일이 다반사라 항상 잠이 모자라기 일쑤였다. 늦잠을 잔 덕분에 다섯시가 다 되어서야 리어카를 부릴 수 있었다. 리어카를 부린 후 음식준비를 할 때였다. 건장한 몇 명의 남자들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한눈에 봐도 구청직원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빌어먹을 또 단속기간인가. 지금이 몇 월이지? 9월말인데..... 뭐 큰 행사라도 있나?

느닷없이 구청직원들이 설치대는 걸 보면 뭘 날이 다가오는 모양인가보다 하고 별 생각없이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지역연합회 회원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더니 황하니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번에도 별 탈 없이 지나갈 거라고 애써 생각하며 궁금증을 달랬지만 참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회원들을 찾아가 궁금증을 해결하기엔 밀려드는 손님들이 한사코 그녀의 발목을 잡아채고 있었다. 곧 한가한 시간이 다가오자 한 회원이 찾아와 초저녁의 일들을 자세하게 일러주는 것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 거대한 쇼핑몰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공사기간은 물론이거니와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 자리에서 노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쇼핑몰이 생기면 미관상 노점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노점은 여차피 불법이니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새 건물주와 구청 쪽의 입장이었다.

순간 앞이 캄캄해졌다. 그것만이 아니었다. 예전부터 말 많았던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도 한 몫을 한 것이다. 쇼핑몰이 생기면 당연히 공사 중에 장사를 한다는 것이 무리였고 아파트 주민들이 말하는 그 민원이라는 것도 아파트 입구로 향하는

길에 노점상들만 단속하면 거리가 넓어져 굳이 주차를 위해 먼길을 에둘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장사를 해 왔던 곳 이었고 아파트 주민들이 민원이라는 것 또한 노점상인들의 거센 항의농성 이틀만에 구청과 합의가 된 사항이었지만 쇼핑몰을 짓는 사업주가 아파트 주민들의 시장성을 염두에 두고 주민들의 민원도 함께 처리해주겠다는 심사가 분명하다는 것이 오랜 노점상인들의 생각이었다.

지부 집행부들은 사건의 내막과 해결을 위해 지역사무실에 올라갔지만 종무소식이었고 남아있는 회원들과 비회원 몇 명이 안절부절하며 집행부의 행차만 기다리는 모양새였다. 예상을 뛰어넘는 뜻밖의 사건에 당황스럽기만 하던 그녀는 회원들은 지역연합회라는 조직의 보호 아래 불이익이 비회원들보다 당연히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애시당초 회원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라며 후회에 후회를 거듭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한은 삼일이었다. 삼일 이내로 노점 하는 자리를 모두 비워달라는 것이었는데 놀라운 것은 회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격분하여 구청을 찾아가 따지자는 사람, 지역에서 안을 내올 때 까지 기다리자는 사람, 이러다가 정말 생계를 빼앗기는 것 아니냐며 울먹이는 사람, 모두 제 각각이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다른 회원들도 어느새 소식을 들었는지 찾아와 구청을 향해 욕을 해대며 씩씩대고 있었고, 지역집행부와 지부집행부가 나타난 시간은 밤 10시가 다되어 있었다. 지역장이라는 사람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쇼핑몰이 세워질 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과 지부회원 모두를 불러 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연합회 회장 김은철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곳에 쇼핑몰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업주와 구청에서는 공사중은 물론, 공사가 끝난 다음에도 이 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점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범법자들입니다. 하지만 범법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항변도 못하고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생계를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다 같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일할 자유와 그것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장님! 위떡 하실건디유. 아, 위떡게 허기로 했던 말이 어유. 누가 그런 것을 모른다고요. 그것말고 집행부에서 결정한 것만 싸게 말해보란 말어유.”

성질 급한 회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지역장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을 꺼냈다.

“네. 지금 당장 열 받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해결 될 일이 아닙니다. 구청과 사업주가 결탁하고 또한 이미 끝난 아파트 주민의 민원을 이용하여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계산하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랜시간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될 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구청 가로 정비과장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 일개 구청과장이나 사업주를 물고 늘어질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자리한 이곳에 신도시가 세워질 거라는 소문이 몇 해전부터 무성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을 위해 노점상을 깡그리 없애겠다는 정부의 속셈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공사 중에는 장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삼일내로 자리를 모두 비우라는데 지역집행부의 생각은 어떤겁니까?”

“내일 신축건물주 관계자와 구청관계자를 함께 만나볼 예정입니다. 일단 첫협상을 들어가 본 다음 저쪽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한 다음 지역의 입장을 함께 논의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구청에서도 함부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내일까지 결과를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과는 무신 놈의 결과!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결과 기다린다고 협상만 죽으라고 하다가 결국엔 다 쫓겨나고 지금 그 사람들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 어렵게 장사 시작한 사람도 있다고 하고, 몇 사람들은 다른 지부에 들어가는 바람에 기존회원들하고 적잖게 마찰이 있었던 것 다들 알잖아요. 그리고 협상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잠깐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지역장은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언성이 높아지지 한곳으로 의견집중이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일단 회원들의 말을 저지하고 나섰다.

“우선은 협상을 우리 쪽에서 요구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협상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벌써 두 해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 일은 우리 모두 가슴 아픈 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저쪽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오랜 협상은 없을 겁니다. 이번 일이 협상으로 끝날 일이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협상을 고집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아내고 형식적으로나마 협상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 실행행사를 하더라도 명분이 서는 것입니다. 지역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거나 누구처럼 회원들을 돈 몇

푼에 팔아 넘기는 반조직적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역장으로 뽑아주신 만큼 한번 믿고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한이 삼일이라잖아유. 그럼 바로 낼 모렌디. 그 삼일동안 무신 놈의 협상을 위떡케 하고 위편 타결을 볼 것 같어유. 말도 안되는 야그 아닌감유.”

“아무리 급해도 우물가에서 승냥을 찾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요. 저쪽의 의도라는 것도 알고 보면 뻔한 일이긴 합니다. 우리도 싸움을 위한 수순을 밟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더더욱 협상을 통해 그 의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는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삼일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사람 있으면 여기 한번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죄송스런 말씀이지만 절대 삼일동안 해결 못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붙어닥친 문제가 내년 총선과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한싸움이 단속의 예고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일은 아닙니다. 단속이라는 것 하루 이틀 당해봅니까? 펄펄 끓는 냄비며 음식통째 용역강패들이 깡그리 부수고 가져간 게 어디 한 두 번이난 말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신도시건설이라는 미명하에 노점상의 생계가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지나 다니는 개만도 못한 처

지로 전략할 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시다. 부탁드립니다.”

지역장은 아까보다 조금 격앙된 목소리로 회원들 앞에 나서고 있었다.

“그렇시다. 여러분, 우리가 뽑은 지역장입니다. 아직 지역장으로 선출된지 석달도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고 이것은 새로운 집행부의 첫 싸움이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믿고 함께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 노점상의 터줏대감인 30여년을 노점을 하면서 자식들 키워내고 출가시킨 후에도 여태 장사를 하시는 황고문이라고 부르는 어르신네의 말씀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새벽까지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느라 장사는 뒷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얘기가 끝나고 남정네들은 무리지어 술자리를 하는 듯 하였지만 여인네들은 일찌감치 정리하고 집으로 귀가하는 발길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스사한 초가을 밤이었다.

선잠에 빠져 들 무렵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정오였다. 옆에서 일하는 이씨 아줌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후다닥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뛰쳐나가자 웅성대는 사람들로 장사하는 곳은 어수선하기만 하였다. 목을 한껏 내뻐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하자 건장한 젊은 청년회원들이 나



서서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디밀어 보았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왜 장사하는 곳에다 이런 텐트를 치는 것인지 고개를 들어 이씨 아줌마를 찾아 영문을 물어보자, 이게 바로 노점단속을 반대하는 노점상들의 실력행사인 텐트농성이라는 것이었다. 말로만 듣던 농성, 데모라는 것이다. 어제 지역장의 협상이라는 것이 잘 안된 게 분명한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장사하는 터전이 농성장으로 변하다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난감해질 뿐이었다. 게다가 그녀는 회원도 아닌 상태라 이렇다 저렇다 그녀의 생각을 한번도 밝혀본 적이 없는 터였지만 농성을 한다고 이번 일이 해결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기만 할 뿐이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무도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것과 이참에 회원으로 가입하라는 이씨 아줌마의 권유가 있었다. 생각해보겠노라는 얘기만 남긴 채 집으로 돌아왔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도 통 잠이 오질 않았다. 11시를 훌쩍 넘겨 딸아이가 들어왔고 남편은 새벽3시가 가까워서야 귀가를 하였다. 남편에게 전후사정을 얘기하자 한숨만 내쉴뿐 크게 뭐라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남편입장에서야 노점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아직 갚아야 할 은행대출금이 그리 만만한 액수가 아님을 남편 역시 인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쉽게 노점을 그만두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장 대출금 갚아내느라 통장에 여유자금이라고는 몇 십만원도 없는 형편이었다. 당장 다른 자리가 있어 그 곳에서 노점을 할 수 있다면 이 눈치 저 눈치 감당해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그것 또한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아는 일이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노점자리도 일년이 다 되어가지만 기존 회원들과의 갈등이 죄다 사그러들었다고 볼 수 없는 일이었다. 다른 자리를 알아본다는 것은 그녀로서는 용기가 나질 않았고 함께 농성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죄스럽고 미안할 따름인데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다. 노점상이 하루 이틀도 아닌 한달이 넘어 벌써 두달을 일주일 앞두고 계속되는 싸움 앞에 누구하나 지치고 힘들지 않는 사람이 없어 보였다. 처음엔 며칠 안에 해결이 날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여전히 단속이라는 것이 시퍼런 칼날을 세운 채 독기를 뿜어내고 있었지만 연합회라는 조직으로 노점상인들이 묶이면서부터는 구청에서도 예고 없이 단속을 하는 일은 드물다고 했다.

그녀는 그런 생각에 싸움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회원들의 싸움으로 얻은 결과이긴 하지만 모른 채 하고 예전처럼 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것은 정말 암체 같은 것이었

다. 하지만 싸움도중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도 속 보이는 것 이라고 아내는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는 길고 긴 싸움 앞에 밀려 두 손을 들었던 것은 싸움 당사자들이 아닌 바로 그녀였다. 이렇게 지난한 싸움을 할 바엔 눈치 보이더라도 다른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더 낫겠다는 설부른 판단을 한 그녀는 리어카를 굴러 장사가 뜬한 한적한 곳에 리어카를 부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단 한번도 리어카를 부려 장사를 해내지는 못했다. 그것은 그녀의 심사를 눈치 챈 이씨 아줌마의 적극적인 만류에서 비롯되었다.

“이 아줌마야. 다른 곳에서 일하면 맘 편할 것 같애. 살아보겠다고 다들 저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데 혼자 그렇게 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다시는 볼 것 같애!”

“아줌마,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은행대출금이 지금 두 달째 밀려서 죽을 지경이에요. 눈감아주세요.”

“아이구. 이 딱한 사람아. 내가 눈감는다고 해결 될 문제라도 눈 못 감아 줘!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냐.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은 비회원들더러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 싸움 끝나면 두고 보자는 거야. 회원들이 피 터지게 싸워서 이기면 뭘해. 비회원들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지. 다 같이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인데 누군 싸우고 싶어 싸우는 사람 있는줄 알아. 지금 자네도 싸우기 싫은 건 마찬가지 아닌가. 그 심정이 저 사람들 심정이

야. 알겠나. 이 사람아.”

“아줌마! 아줌마가 저희 사정 잘 아시잖아요. 지금 당장 장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남편도 며칠 전에 가벼운 교통사고긴 하지만 남편 월급 고스란히 그쪽으로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자네가 당장 어디 가서 장사한다고 쳐! 어디가서 할 건가. 그리고 장사하면 누가 하게 나누기나 할 것 같애. 이 좁은 바닥에 어디서 장사하던 사람이라는 것 다 알지 않은가. 그런데 자네 혼자 힘들다고 그렇게 다른 곳에도 리어카를 부리면 곱게 일하도록 뇌물성 싫어? 어렵도 없는 일이야. 노점 하는 사람들이 한번 성내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자네도 사람 사는 이치라는 것은 알 것 아닌가. 자네 왜 그렇게 시아가 좁아 터졌나 그래..... 아이구 이 딱한 양반아.”

“.....”

“지금 저기 싸우는 있는 사람들은 돈 쌓아놓고 있는 줄 알아? 돈 쌓아놓고 있을 사람 있으면 저렇게 싸우지도 않아. 저게 우리 생활터전이고 목숨 줄이야. 내 더 이상 말하지 않겠네. 그래도 자네 걱정해서 이러는 거니까 잘 생각해보고 판단 잘 해야 하네. 알겠나?”

“네. 아줌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맙구요. 잘 생각해볼테니 너무 염려마세요.”

“미안한 줄 알면 농성장에 라면이라도 싸 들고 한번 와!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나 이제 가 봐야 할 것 같네. 생각 잘 해아 하네.”

“네...안녕히 가세요.”

그녀는 이씨 아줌마가 나간 뒤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리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결말지어질 것은 없어 보이는 듯 하였다. 남편이 택시회사에 취직을 하고 난 위대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듯 하였던 것이 그녀의 노점 단속과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해 한발 뒤로 물러선 듯 해 보였고, 사실 물러선 정도가 아니라 멈춰진 상태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옳은 얘기일 것이다.

거실의 패종시계는 음산한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었다. 뒤척이느라 차가운 바람이라도 맞는 게 한결 나을 것 같아 베란다에 나섰다. 남편이 바라보던 산비탈의 불빛도 지금처럼 희뽀하게 사방으로 빛을 내 뿜어내며 불빛속으로 사람을 끌어 당겼을까? 혹 빨려 들어가 차라리 한 점 불빛이 되어 버리길 간절히 바랬을지도 모른다.

얼굴이 푸석푸석한 게 기름기라곤 하나도 없는 얼굴을 하고 농성장으로 나서려던 그녀는 다시 부업으로 들어가 한사발 냉수를 들이켰다. 쓰러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은 그녀는 초점 없는 눈동자만 창가에 내던진 채 30여분을 그렇게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다. 한손으로 오그리고 있던 무릎을 짚고 어쩔사리 일어난 그녀는 큰 숨을 한번 내쉬고는 현관을 나섰다. 울컥 치미는 속울음을 달래는 듯 한껏 고개를 뒤로 제친 뒤 또 한번 큰 숨을 내쉬었다. 눈을 깜박여보았지만 어느새 눈물이 되어 턱 밑까지 타고 내려온 따뜻한 액체를 손으로 쓰옥 문지르자 뒤따라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 없었다. 뒤적인 바지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든 그녀는 아예 걸음을 멈추고 훌쩍이기 시작했다. 농성하는 회원들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건지, 그녀는 길 건너에서 바람과 먼지 속에 묵묵히 버티고 서 있는 천막을 바라보았다. 오래 버틸 만큼 날씨는 그녀를 내버려두지 않았다. 출기도 했지만 이왕 결심한 것 회원가 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준비해 온 라면 한상자를 다시 머리에 이고 두 손으로 받쳐들었다. 천막입구에 다다랐지만 사람을 불러낼 용기가 나질 않았던 그녀는 내심 천막안에서 누가 나와주길 바랐다. 그렇게 몇 분 동안 우두커니 서 있던 그녀는 라면 상자를 살며시 내려놓고는 발길을 돌려버렸다. 아파트로 돌아온 그녀는 이씨 아줌마에게 전화를 할까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리 그녀를 이해하는 이씨 아줌마라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농성장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은 그녀를 반기지 않을 것만 같아 전화하는 것도 그만두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는 복덕방에 들러 아파트를 내놓았다. 남